



분유 재고 체화의 해소방안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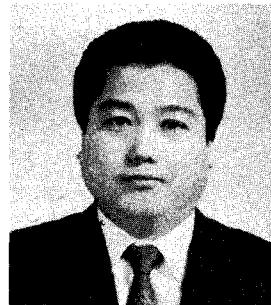
지구상에서 가장 값진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각양각색이겠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품이 인간에 있어서 필수불가阙한 것이라고 정답을 정하고싶다.

우리나라는 4천2백만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식량을 100%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85년부터 자급율이 50%이하인 48.6%로 떨어져 점차 자급도가 낮아지고 있다.

농본국인 우리나라는 전국토면적 9,908천 ha 중 21.6%에 해당하는 2,144천 ha만이 경지로 이용하고 66%에 해당되는 6,539천 ha는 임야자원으로 남아있는 실정에 있다.

부족되는 곡물을 7~8백만 M/T씩이나 수입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식량이요 완전한 식품인 우유가 남아 '87년 5월 말현재 분유재고는 1만톤을 넘어서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식량중에서 최고급의 동물성-단백질을 비롯한 각종 영양소를 균형있게 지니고 있는 우유가 남고 있다는 사실에 축산학계의 한 사람으



경제학 박사 류 제창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한국 축산경영학회 회장)

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하루 빨리 해결법안을 모색해야 되리라 믿으며 평소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 한국낙농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1902년 불란서 사람 쇼트씨가 20마리의 젖소를 들어와 신촌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시작되었다.

84년의 세월이 지난 '86년도말 현재 42,728호의 사육농가가 사육하는 젖소두수는 437,333두로 증가하였고, 원유생산량은 1,154,460M/T에 이르렀으며 원유재고 량은 48,611M/T이 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년간에 약 28kg의 우유를 소비하게 되었지만 하루에 불과 77g의 소비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 수준이 기대되는 1991년도에는 소득탄력치 2.0를 기준했을 때 1인당 46kg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유량 200만 M/T시대가 전망되며, 70만두 사육두수가 전망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겪고 있는 낙농의 어려움은

표 1. 우유 수요예측과 적정 사육두수 추정

구분	1인당 GNP (\$)	인구 (천명)	대 용 량 요						적정 사육원수 (천원)		
			1인당 수요량 (kg)			전체 수요량 (천M/T)			소득탄력치	소득탄력치	소득탄력치
년도			소득탄력치	소득탄력치	소득탄력치	소득탄력치	소득탄력치	소득탄력치	소득탄력치	소득탄력치	소득탄력치
			(2,8373)	(2.5)	(2.3)	(2.0)	(2,8373)	(2.5)	(2.3)	(2.0)	(2.0)
1984	1,998	40,578	20.5	20.5	20.5	20.5	833.5	833.5	833.5	334	334
1985	2,129	41,176	24.10	23.68	23.42	23.04	992.3	975.1	964.3	380.07	373.48
1986	2,337	41,785	30.81	29.48	28.70	27.56	1,287.4	1,231.8	1,199.3	1,151.6	485.85
1987	2,452	42,383	35.09	33.09	31.34	30.26	1,487.2	1,402.4	1,328.3	1,282.5	553.00
1988	2,573	42,965	39.97	37.14	34.87	33.23	1,717.3	1,595.7	1,498.2	1,427.7	629.18
1989	2,702	43,541	45.64	41.78	38.88	36.55	1,987.2	1,819.1	1,692.9	1,591.4	717.25
1990	2,838	44,117	52.11	47.00	43.85	40.21	2,299.0	2,073.5	1,912.5	1,733.9	817.49
1991	3,060	44,690	63.64	56.17	51.13	46.48	2,844.1	2,510.2	2,285.0	2,077.2	996.35

자료 : 류제창, 낙농경영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창간호, 1985

주 : 1인당 GNP 인구는 K.D.I. 추정치임.

슬기롭게 대책을 강구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고 있다.

다만 수입자유화 정책에 의한 값싼 외국 유제품이 대량 수입될 경우에는 또다시 더 큰 시련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낙농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인한 의지와 낙농인의 자구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우유 체화의 현황

낙농산업은 밝은 전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자원 이용면에서도 낙농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주요산업부문인데도 불구하고 우유의 수급불균형이 생기어 낙농업계는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다.

과연 최근의 우유의 체화량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유제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표2〉와 같다.

낙농업의 보호 육성위한 정부의 강인한 의지와 낙농인의 자구책 요구

표 2. 유제품 재고 현황

유제품	재고량 (톤)
전지분유	6,941
탈지분유	3,621
조제분유	991
연유	830

주 : 전지분유 및 탈지분유의 재고량은 1987. 5월 현재량.

조제분유 및 연유의 재고량은 1987. 4월 현재량임.

자료 : 한국유가공협회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87. 5월말 현재 전지분유가 6,941톤, 탈지분유 3,621톤 4월만 현재 조제분유 991톤, 연유 830톤으로 도합 12,383톤이 쌓여 소비자를 갈구하고 있으며 분유만 계산해도 11,553톤이나 쌓여 있다.

이들 분유가 무한정 저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정시일이 지나면 분유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분유의 소비확대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게 될것으로 우려된다.

4. 우유 체화의 요인

결과적으로 우유의 수급불균형 즉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다.

〈표 3〉 유장분말년도별 수입실적

(단위 : M/t, US \$ / M/t, 천US \$)

구분 년도	조제분		유용사료			용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82	7,183	711	5,109	1,119	429	480
'83	7,152	678	4,847	1,977	384	760
'84	7,566	597	4,514	2,422	408	987
'85	7,157	587	4,203	2,990	424	1,268
'86	63226	796	5,033	3,938	452	1,780

※ 추천 실적임.

그런데 우유의 공급량은 국내생산량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유장분말, 탈지분유, 유당, 카제인등의 우유성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표 3, 4참조)

국내 생산량도 전년도 대비 23-24%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우의 소비증가율은 15% 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유가 체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표3〉에서 보는 바와같이 과거 5년간 조제분유용 유장분말을 35,384M/T, 사료용으로 12,446Mm/T을 수입하여 도합 47,830M/T을 수입하여 직접 원유의 수입은 아니더라도 원유수입과 비슷한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표 4〉 유당 및 카제인 년도별 수입실적

(단위 : M/t, US \$ / M/t, 천US \$)

구분 년도	유당			카제인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82	4,914	606	2,980	2,469	2,788	6,883
'83	5,120	567	2,903	3,270	2,543	8,317
'84	5,120	507	2,834	3,976	2,281	9,070
'85	5,130	494	2,536	4,146	2,064	8,556
'86	4,722	678	3,202	5,313	2,375	12,619

※ 무역통계년보 실적기준임.

또 〈표4〉에서 보는 바와같이 과거 5년간 유당을 25,473M/T, 카제인 19,174M/T을 수입하여 무려 59,900천 달러의 외화가 소비되었다.



즉 (1) 급격한 원유생산량의 증가

(2) 생산량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신장률

(3)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막대한 양의 유장분말, 유당, 카제인등으로 인하여 우유체화는 지속되어 어질 것이다.

(1)의 급격한 원생산량의 증가 요인은 첫째, 젖소의 적극적인 개량과 사양기술 향상, 경영의 합리화등으로 두당 유량의 증가, 둘째, 전체 젖소 사육두수의 증가에 의한 우유의 증산, 셋째 소값하락으로 인한 젖소도태두수의 감소, 넷째 사료가격은 하락한데 비하여 원유가격은 비교적 안정선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료급여량의 증대에 의한 우유증산의 가능성, 다섯째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충으로 사료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므로서 증산효과, 여섯째 송아지 가격의 상대적 하락에 의한 경영개선의 방향이 원유증산으로 설정되어 유량증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된다.

(2)의 생산량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신장률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면, 첫째 전국민의 우유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둘째 우유의 대체상품이 범람하고 있고, 세째 시유중심의 소비구조, 넷째 우유의 유통마진이 커서 가격상승요인에 의한 소비신장둔화, 다섯째 우유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의 부족, 즉 정부나 업계의 홍보방법의 문제와 적극성 결여, 여섯째 초, 중, 고등학교의 우유급식 확대



-한 나라의 장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이다.

부진, 일곱째 낙농인의 우유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음용부진 여덟째 우유요리의 개발과 보급의 부족등을 들 수 있다.

5. 우유소비 확대방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유소비 부진에 대한 요인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우유 소비확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우유의 잠재소비확대 가능성은 강구대책에 따라 크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1) 범국민적으로 우유의 진가를 인식시키는 우유마시기 캠페인을 벌이자.

우리나라는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구조 때문에 기성세대에게는 생리적으로 거부반응이 오기 쉽다.

그러나 조금씩 음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체내에 우유를 응고 소화시키는 효소가 생기어 특이한 체질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식품인 우유는 우리 인간이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각 기관의 제기능을 발휘케 하는데 가장 적합한 완전식품이다. 그것은 우유가 우리 인간의 체액이나 혈액과 같이 알칼리도가 0.22로서 알칼리 식품일 뿐만 아니라 최고급의 단백질, 칼슘등 114가지의 영양소가 균형있게 들어 있는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① 우유는 쌀밥과 천생연분

쌀밥에는 lysine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반하여 우유속에는 필요이상으로 많이 함유되어있기때문에 밥을먹고(빵도 마찬가지) 우유를 마시면 쌀밥의 단백질이용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증산효과까지 있다.

② 우유는 어린이의 성장과 천생연분

올림픽 경기를 비롯한 국제경기에서 우리나라라는 항상 신장과 체력의 열세를 면치못하고 있어 경기를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선진제국의 국민과 같이 세계수준에 오르려면 식생활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어린이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인, Vit B₂등이 다른 식품에 비해 풍부하여 어린이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필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력을 세계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낙농발전과 우유마시기 운동에 근20년간 소리치고 있다. 70년에 결혼하여 3총사를 계획생산한 후 집사람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놈 모두 “초유떼기”를 하고 우유로 키웠고 세놈을 실험동물(?)로 생각하고 쌀밥옆에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한컵의 우유를 승강대신 마시도록 했고, 우유를 밥에 넣어 말아먹도록 한 결과 큰 놈의 경우 국민학

우유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적합한 완전식품.

교 6년시 이미 175cm, 고등학교 1년인 현재 181cm수준이고, 둘째, 셋째도 중학교3년, 중학교 1년인데 170cm수준에 와있다.

그래서 유전적인 형질보다는 출생후 식생활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교할때 80년도 자료에 의하면 국민학교6년 남학생의 신장비교에서 일본 학생이 4.1cm나 큰것으로 나타났다.

옛날에 일본사람이 키가 작아서 왜놈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보다 우유를 3배이상 많이 마시고 있고, 국민학교 중학교, 특수고등학교까지 우유학교급식을 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임춘애선수에게 작년 7월부터 96.7. 31일까지 10년간 주기로 하고, 날마다 우유

또한 머리조직이 생성되는 태아시나 출생후에도 유당을 비롯한 우유성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임신중에 매일 3-5병정도의 우유를 마시는 것은 태아뿐만아니라 임신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에도 필수적이다.

④ 우유는 위암을 예방한다.

일본의 사이따마겐 의과대학 교수인 야노가 쓰유끼 박사는 가공어류와 김치종류 야채등을 함께 먹었을때는 「니트로소아민」이란 위암의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종류의 식사후에는 반드시 우유를 마시면 그 우유가 발암물질을 파괴한다고 발표한바있다. (서울 무역회관)

⑤ 우유와 혈압및 숙면과의 관계

우유속에 많은 트리프트판은 세로토닌

옛날에는 키가 작아서 왜놈이라 했던 일본인이 우리보다 키가 큰 것은 우리보다 우유를 3배이상 마시기 때문이다.

200ml 5병씩을 준 결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는지 아시안 게임시 육상의 3관왕으로 우뚝 솟았는데 김번일코치와 10.13일 만나보니 161cm였던 임춘애선수가 우유마시고 두달만에 163cm로 컸으며 혈색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체력전에는 우유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③ 우유와 머리활동은 천생연분

우유를 마시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조직은 약 150억개의 대뇌피질세포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머리조직이 활동하는데에는 단백질, VitB, B₆, B₁₂를 비롯한 각종 영양소가 요구되는데 우유속에는 이런 머리영양소가 고루 들어있기때문에 머리 회전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serotonin)이란 신경 홀몬을 만들어 혈압을 조절하고 숙면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⑥ 우유와 장수와의 관계

노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칼슘의 배출량은 늘어나고 섭취력은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우



우리나라 국민의 체력증진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우유소비 촉진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우유 급식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것으로 생각된다.

유를 마시면 다른 음식의 2배 가량 칼슘분의 섭취가 증가한다고 한다.

필자가 65년도 일본의 낙농경영연수를 갔을 때 「구로사와 목장」의 주인인 「구로사와 도리죠」 할아버지는 당시 80세의 고령인데도 하루에 6홉의 우유가 주식이고 현미밥을 한끼에 한공기, 과일을 식단으로 정하고 식사를 하였는데 9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작고했고, 나고야 근교에 「아이찌 목장」이 있었는데 그 주인인 「오제끼 이이찌」 할아버지도 여섯병의 우유를 주식으로 장수하시는 것을 보았다.

⑦ 우유와 독주와의 관계

양주, 소주, 위스키등의 독주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우유를 한컵마시고 술을 시작해야 된다.

알콜은 위에서 바로 흡수되므로 빈 속에 술이 들어가면 빨리 취하고 위장이 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우유로 위를 코팅하면 위벽을 보호하고 빨리 술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술자리에는 반드시 우유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⑧ 우유의 피부미용과 2세건강과의 관계

우유는 여성의 피부를 아름답고 탄력적으로 만들며 어린이의 치아를 튼튼하게 해 주기 때문에 엄마들은 엄마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선 식단을 마련할때에 첫째 우유를 넣어야 된다는 과학적인 상식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상의 우유의 특성을 온 국민이 하루빨리 알도록 하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는 학교의 축제때에 「우유마시기 대회」를 비롯 '86년부터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우유시음대회 및 인쇄물을 통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의 낙농업계의 고통을 실감하고 하루빨리 낙농가의 안정된 경영과 유업계의 발전을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축산대학 재학생 40명이 7.4일부터 7.29일까지 「범국민 우유마시기 도보캠페인」을 계획하고 그 준비에 바쁜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우유홍보실장이란 별명을 받게된 필자가 본 행사의 지도교수책임을 맡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우유와 대체상품인 콩제품과 영양관계를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소비자층이 많기 때문에 전국의 여성을 대상으로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의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유관단체에서 마련하고 그 분야의 권위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T.V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우유 홍보에 더욱 진력해야 될것이다.

(2) 학교우유급식의 대폭적 확대

우리나라 국민의 체력증진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우유소비 촉진확대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정부와 유업계에서 학교급식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표5〉에서 보는 바와같이 '85년보다 '86년에는 100만명의 학교급식을 확대하여 300만명이상의 학생에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민학교 전 학생의 약 65%에 급식하고 있는 생태이나 인근

〈표 5〉 연도별 학교 우유 급식비교표

년도 / 구분	학생수(천명)	급식량(톤)	학생보급율(%)
70	23(5,749)	745	0.40
71	29(5,807)	937	0.50
75	53(5,599)	1,725	0.95
79	103(5,641)	3,443	1.83
80	450(5,670)	15,065	7.94
81	1,163(5,587)	38,951	20.80
82	1,039(5,465)	34,794	19.00
83	1,521(5,257)	50,932	28.90
84	1,795(5,041)	58,074	34.40
85	2,123(4,856)	75,005	43.72
86	3,116(4,798)	116,091	64.94

일본에 비하면 아직도 훨씬 떨어지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국민학교 전체학생, 중학교 전체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에 까지 학교 우유 급식을 적극 권장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으로 믿는다.

(3) 낙농인이 우유소비촉진에 앞장서야

낙농강습회가 있을때마다 강조한바 있지만 낙농가가 생산한 우유는 낙농가 스스로가 충분히 소비하는 자세를 갖춰야된다.

가족 1인당 1kg(5병)정도의 우유는 마셔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면서 우유체화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다방에서 손님과 만나 차를 마실때에도 우유를 마시면서 우유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되며, 빵집에서 빵을 먹을 때에도 반드시 우유를 주문하여 마시는 의무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원유kg당 1원씩의 자조금을 모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현명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며 이러한 기금을 통하여 우유의 홍보,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진단사업등 낙농가 권익보호를 위한일에 활용해야 될것으



로 믿는다.

(4) 유제품개발에 의한 다양화

시유중심의 소비방침을 수정하여 선진제국의 과거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다양한 유제품 개발을 한국의 기호에 맞게 접근하므로써 원유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5) 우유를 이용한 요리의 개발과 보급

외국에서는 우유를 이용한 요리가 500여 가지가 있다고 듣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70여 가지의 요리가 얼마전에 선을 보인적이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 패턴에 우유를 기미하므로써 영양과 맛을 개선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군대의 우유급식의 확대

단체급식을 하고있는 군대에는 급식이 용이하고 정부나 국방부가 정책결정만 한다면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군인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부처간에 협력하여 시골산간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하고 있는 낙농



유에 대한 홍보활동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우유의 잠재수요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유의 가공, 소비유통의 책임과 기능을 담당하는 유업체들은 오늘의 분유재고가 생산과잉으로 보지말고 소비부진으로 보아 보다 적극적인 우유계몽에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된다.

낙농가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생산한 우유를 팔아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유업체들이 낙농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있다면 낙농가

외화를 낭비하며 수입한 커피를 마시지 말고 국내에서 남아도는 우유를 마시는 운동이 각 직장마다 일어나도록 「우유자판기」 보급이 시급하다.

가를 보호하고 고급식량의 자급화를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단언을 내려야 할것이다.

(7) 전국의 공무원 우유마시기 운동

요즈음에 커피자판기, 각종 음료수 자판기가 각 징장마다 설치되어있다.

외화를 낭비하여 커피를 수입한 외제를 외면하고 국내에서 남아도는 우유를 마시는 운동이 직장마다 일어나도록 「우유자판기」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공복으로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유마시기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8. 결 론

식량자급율이 50%이하인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식량인 우유가 남아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우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있고, 낙농가, 유업체, 정부, 학계등에서 우

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어져야하며 낙농가 때문에 오늘의 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유업체가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될것이다.

우리나라의 낙농발전을 위해 공존하고 있는 낙농가, 학계, 유업체, 정부는 현 시점에서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적극적인 소비촉진방안을 모색하여 「범국민적인 우유마시기 캠페인」에 솔선해서 참여해야 될것이다.

●● 유업체들은 오늘의 분유재고가 생산과잉으로 보지말고 소비부진으로 보아 보다 적극적인 우유계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